

인천시립극단 Incheon City Theatre Company

1990년 6월 장기적인 인천문화예술 발전계획에 따라 창단한 인천시립극단은 공립극단으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창단되었으며, 수준 높은 공연 활동을 통해 인천연극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앞장 서며 공립극단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창단공연인 「춘향전」을 시작으로 수많은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인천지역의 연극 대중화에 앞장서 왔으며 서양의 고전을 한국정서에 맞게 번안한 공연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시즌별 레퍼토리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연극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과 신뢰받는 극단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였다.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는 공연과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다양한 공연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예술단체가 되고자 한다.

매년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인천시립극단이 되기 위해 오늘도 시립극단의 모든 단원들은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2015년 공연실적

(단위 : 건, 회, 명)

구 분	계	정기공연	기획공연	청소년대상 공연	찾아가는 예술활동	해외공연	상설무대	기 타
공연건수	19	2	2	-	12	-	-	3
공연횟수	51	16	18	-	12	-	-	5
관람인원	18,298	5,281	5,837	-	3,380	-	-	3,800

* 2015년 시립극단 공연현황 총괄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19건 / 51회			18,298명
2015. 1. 30 ~ 2. 7 소공연장 (8회)	제69회 정기공연 “메테아네이처”	<p>연출 : 주요철 극작 : 홍창수</p> <p>*출연진* 강주희 송주희 김세경 정순미 김태훈 김희원 이신애 김현준 심영민 강성숙 김문정 서창희 권순정 이규호</p> <p>*스텝* 드라마트루기 : 하형주 조연출 : 손경희 무대감독 : 최소현 무대디자인 : 임창주 조명디자인 : 이나구 의상디자인 : 정경희 소품디자인 : 서정인 작곡 : 강은구 안무 : 박이표 분장디자인 : 박팔영 사무단원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p>	<p>남편 이아손의 배신으로,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친 두 아들을 죽인 메테아! 그녀는 질투와 광기의 살아있는 전설이다!</p> <p>숲의 부족 지도자의 딸인 메테아는 남편 이아손이 자신을 버리고 글라우케와 결혼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글라우케는 도시 지배자의 딸로서 권력지향적인 그녀는 도시 확장을 위해서는 숲의 부족이 지닌 황금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아손에게 그 황금을 약탈해오면, 권력자인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결혼 후 이아손의 두 아이를 기르겠다고 약속한다.</p> <p>메테아는 부상을 당한 채 추격을 당하고 있는 오빠를 우연히 만나 숲의 부족의 멸망과 숲의 파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오빠는 도시 부족과 숲의 부족 간 전쟁의 근원이 황금을 약탈해간 이아손 때문이라며, 그가 홀리고 간 증표를 메테아에게 건네준다. 추격자들은 오빠를 죽이고, 메테아는 위대한 전사 이아손의 아내라고 대답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메테아는 자신이 살기 위해 오빠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이아손을 가장 증오했면서도 그의 아내라고 말한 자신의 비겁함에 울분을 터뜨린다.</p> <p>메테아는 배신자 이아손과 글라우케,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까지 죽여 이아손을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지내게 하겠다고 결심한다. 메테아는 이아손에게 두 아들을 넘기고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떠나지만, 다시 돌아와 그들을 엿본다. 메테아의 집에서 글라우케는 메테아가 준비한 독이 들어있는 과일주를 마시고 쓰러진다. 이아손도 독배를 마셔 죽으려 할 때, 메테아가 이아손에게 해독제를 먹여 그를 살려낸다. 이아손은 메테아가 글라우케를 죽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메테아는 오빠로부터 건네받은 증표를 보여주며 숲의 부족의 파멸과 숲의 파괴 내용을 전한다. 그리고 이아손이 보는 앞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독이 든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한다. 이아손은 두 아들의 죽음을 막아보려 했으나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메테아는 주술을 하여 죽은 숲의 부족의 영혼들과 생명들의 영혼을 부르는 의식을 치른다. 마지막으로 두 아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깨워 새 집을 향해 떠난다.</p>	1,052명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5. 4. 3 ~ 5 소공연장 (5회)</p>	<p>교사와 함께 공연하는 “한 여름 밤의 꿈”</p>	<p>작 : 셰익스피어 각색 : 오은희 연출 : 주요철</p> <p>*출연진* 서국현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범 김태훈 송주희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교사 배우> 신용우(은지초 교장) 이명분 (경인교대부설초 교장) 박근희(인혜학교) 권유미(석정여고) 이지선(청라초) 김수정(학익고) 임운정(문일여고) 이윤구(한누리학교) 박성준(서면초) 이주희(마장초) 김배정 (인천생활과학고) 이영은(가정고) 김현경(은지초) 김보라(신현고)</p> <p><대학생 배우> 류일선 박경선 채영은 한선구</p> <p><객원> 장승연 유채아</p> <p>*스텝* 작곡 : 이병복 무대디자인 : 송용일 조명디자인 : 이나구 의상디자인 : 정경희 안무 : 박이표 음향감독 : 이복행 소품디자인 : 서정인 분장디자인 : 이정희 헤어협찬 : 달팡 홍보디자인 : 김미연 무대감독 : 조영민 녹음·믹싱 : 이주연 조안무 : 유지숙 협력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김화산 이우희 이든형 김새롬</p>	<p>공장에 수상한 신참이 나타났다?? 수상한 신참과 공장의 미생들이 만드는 극중 극 한 여름 밤의 꿈!</p> <p>인간 대신 점점 기계가 대체해 가는 미래 사회의 어느 자동차 공장. 아직까진 생산 라인이 인간의 힘으로 굴러간다. 허나 그것도 잠시의 희망일 뿐, 글로벌화와 현대화를 기치로 내세워 공장은 어느새 멈추고 근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 회사 측의 입장을 기다린다. 헌데 신참이라고 나타난 인물이 기다리는 동안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을 만들어 보자고 제시한다. 책이란 것조차 읽어 본 적 없는 이들에게 연극은 낯설면서도 불편한 존재다. 하지만 무료하고 초조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차츰 연극에 참여하게 되고 어느새 그들은 연극 속 “한 여름 밤의 꿈”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연극이 한참 무르익어 끝을 향해 갈 즈음,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오고, 공장은 폐쇄된 채, 기계화를 선언하고 근로자들은 일 자리를 잃고 공장을 떠나야만 할 입장이다. 더구나 연극을 제한했던 신참은 체포되어 가고. 이제 텅 빈 공장에 남은 근로자들은 그들 스스로 “한 여름 밤의 꿈”의 마지막을 장면을 만들어간다. 결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들만의 꿈을 위해...</p>	<p>2,038명</p>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5. 5. 9 ~ 17 대공연장 (8회)</p>	<p>제70회 정기공연 “로미오와 줄리엣”</p>	<p>공동연출 : 벨라코비치발레리, 주요철 원작 : 셰익스피어 번역 : 신영선</p> <p>*출연진* 심영민 강주희 이규호 정순미 권순정 서국현 김태범 이범우 김세경 김현준 김희원 김현준 권순정 서창희 김문정 차광영 김태훈 최진영 송주희 강성숙 이신애</p> <p><객원> 장우현 정홍섭 김상우 윤호상 노형국 유승원 이정은 이재은 류일선</p> <p>*스텝* 의상 : 알레사 자예즈 무대 : 송용일 분장 : 강대영 소품 : 서정인 영상 : 김성철 음향 : 이복행 조명 : 이나구 헤어 : 빅토리아 사진 : 류재형 동영상 : EGTV 통역 : 장우현 홍보디자인 : 김미연 협력연출 : 막심노비코브, 손경희 무대감독 : 조영민 사무단원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p>	<p>러시아 연출가 벨라코비치 발레리 로만노비치 연출! 세월이 흘러도 모두의 가슴에 남은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아름다운 비극!</p> <p>베로나의 최대 가문 몬테규가와 캐플렛가는 불공대천의 원수사이다. 몬테규 영주의 잘생긴 아들 로미오는 평생 순결을 서약한 로잘린에게 당한 실연으로 몹시 우울한 상태인데 마지못해 친구들과 함께 가면무도회 복장을 하고 캐플렛가 잔치에 참석한다. 캐플렛 영주의 아름다운 딸 줄리엣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로미오는 잔치가 끝난 후 그녀의 모습을 볼수 있을까 하여 그녀의 창아래서 서성이다가 자신에 대한 줄리엣의 혼잣말 사랑고백을 엿듣게 된다. 그는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들은 다음 날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한다. 로미오가 감히 캐플렛가의 잔치에 참석한 것을 눈치챈 캐플렛의 외조카 티볼트가 로미오 친구들에게 시비를 걸어 결투 중 머큐쇼를 죽인다. 그 소식에 분개한 로미오가 티볼트를 죽이고 추방되니, 줄리엣은 친척 오빠의 죽음이 슬프지만 로미오에 대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둘이 로렌스 수사의 주례로 결혼한 사실을 모르는 캐플렛 영주가 줄리엣을 파리스 백작과 막무가내로 결혼시키려 하자 줄리엣은 로렌스 수사에게 다시 도움을 청한다. 수사는 한참 망설인 끝에 먹으면 42시간동안 죽은 듯 호흡이 정지했다가 감쪽같이 다시 살아나는 약을 권한다. 줄리엣이 죽은 걸로 하고 묘지에 안치되어 있으면, 연락을 받은 로미오가 와서 깨어난 줄리엣을 데려가기로 한다. 그러나 수사의 편지는 로미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줄리엣의 장례식 소식을 접한 로미오는 독약을 사 들고 자살한 결심으로 줄리엣 무덤으로 잠입한다. 진심으로 문상 중이던 파리스를 결투로 죽인 후 자신도 독약을 마시고 죽는다. 줄리엣은 깨어나지만 로미오가 자살한 것을 보고 남은 독약으로 자살하려고 하지만 남은 독약이 없자, 로미오의 단도를 뽑아 자신을 찌른다. 로렌스 수사가 도착하지만 때는 늦었고 그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은 두 가문은 비로소 화해한다.</p>	<p>4,229명</p>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15. 8. 5 ~ 6 포항 환호해맞이공원 (2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초청공연 “한 여름 밤의 꿈”	연출 : 주요철 원작 : 셰익스피어 *출연진* 김세경 강주희 서국현 정순미 차광영 강성숙 심영민 이수정 최진영 김태범 서창희 김희원 송주희 김희준 김현준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공장에 수상한 신참이 나타났다?? 수상한 신참과 공장의 미생들이 만드는 극중 극한 여름 밤의 꿈! 인간 대신 점점 기계가 대처해 가는 미래 사회의 어느 자동차 공장. 아직까진 생산 라인이 인간의 힘으로 굴러간다. 허나 그것도 잠시의 희망일 뿐, 글로벌화와 현대화를 기치로 내세워 공장은 어느새 멈추고 근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 회사 측의 입장을 기다린다. 현대 신참이라고 나타난 인물이 기다리는 동안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을 만들어 보자고 제시한다. 책이란 것조차 읽어 본 적 없는 이들에게 연극은 낯설면서도 불편한 존재다. 하지만 무료하고 초조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차츰 연극에 참여하게 되고 어느새 그들은 연극 속 “한 여름 밤의 꿈”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연극이 한참 무르익어 끝을 향해 갈 즈음,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오고, 공장은 폐쇄된 채, 기계화를 선언하고 근로자들은 일 자리를 잃고 공장을 떠나야만 할 입장이다. 더구나 연극을 제한했던 신참은 체포되어 가고, 이제 텅 빈 공장에 남은 근로자들은 그들 스스로 “한 여름 밤의 꿈”의 마지막 장면을 만들어간다. 결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들만의 꿈을 위해...	1,200명
2015. 8. 8 ~ 9 거창 수송대 축제극장 (2회)	거창국제연극제 초청공연 “한 여름 밤의 꿈”	<객원> 이정은 이광훈 채영은 유일선 이재은 장승연 *스텝* 무대 : 송용일 조명디자인 : 김신영 음향 : 김신혜 분장 : 이정희 조연출 : 손경희 무대감독 : 조영민 사무단원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김세룡	인간 대신 점점 기계가 대처해 가는 미래 사회의 어느 자동차 공장. 아직까진 생산 라인이 인간의 힘으로 굴러간다. 허나 그것도 잠시의 희망일 뿐, 글로벌화와 현대화를 기치로 내세워 공장은 어느새 멈추고 근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 회사 측의 입장을 기다린다. 현대 신참이라고 나타난 인물이 기다리는 동안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을 만들어 보자고 제시한다. 책이란 것조차 읽어 본 적 없는 이들에게 연극은 낯설면서도 불편한 존재다. 하지만 무료하고 초조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차츰 연극에 참여하게 되고 어느새 그들은 연극 속 “한 여름 밤의 꿈”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연극이 한참 무르익어 끝을 향해 갈 즈음,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오고, 공장은 폐쇄된 채, 기계화를 선언하고 근로자들은 일 자리를 잃고 공장을 떠나야만 할 입장이다. 더구나 연극을 제한했던 신참은 체포되어 가고, 이제 텅 빈 공장에 남은 근로자들은 그들 스스로 “한 여름 밤의 꿈”의 마지막 장면을 만들어간다. 결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들만의 꿈을 위해...	1,700명
2015. 9. 3(수)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참가공연 “한 여름 밤의 꿈”	연출 : 주요철 원작 : 셰익스피어 *출연진* 김세경 강주희 서국현 정순미 차광영 강성숙 심영민 이수정 최진영 김태범 서창희 김희원 송주희 김희준 김현준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공장에 수상한 신참이 나타났다?? 수상한 신참과 공장의 미생들이 만드는 극중 극한 여름 밤의 꿈! 인간 대신 점점 기계가 대처해 가는 미래 사회의 어느 자동차 공장. 아직까진 생산 라인이 인간의 힘으로 굴러간다. 허나 그것도 잠시의 희망일 뿐, 글로벌화와 현대화를 기치로 내세워 공장은 어느새 멈추고 근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 회사 측의 입장을 기다린다. 현대 신참이라고 나타난 인물이 기다리는 동안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을 만들어 보자고 제시한다. 책이란 것조차 읽어 본 적 없는 이들에게 연극은 낯설면서도 불편한 존재다. 하지만 무료하고 초조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차츰 연극에 참여하게 되고 어느새 그들은 연극 속 “한 여름 밤의 꿈”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연극이 한참 무르익어 끝을 향해 갈 즈음,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오고, 공장은 폐쇄된 채, 기계화를 선언하고 근로자들은 일 자리를 잃고 공장을 떠나야만 할 입장이다. 더구나 연극을 제한했던 신참은 체포되어 가고, 이제 텅 빈 공장에 남은 근로자들은 그들 스스로 “한 여름 밤의 꿈”의 마지막 장면을 만들어간다. 결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들만의 꿈을 위해...	900명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15. 9. 10(목) 한국전력공사 영종지사				500명
2015. 9. 11(금) 남구노인문화센터	찾아가는 공연 “미스터 웡을 찾아서”	<p>작가 : 김태수 연출 : 주요철</p> <p>*출연진* 이범우 최진영 김현준 이신애 심영민 김문정 김희원 이수정 김태범</p>	<p>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새 생명연구센터의 황보 박사는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비 후원을 부탁하기 위해 욕심 많고 돈 많은 웡고집의 집에 제자 우륵을 보낸다. 그렇지만 웡고집은 어처구니없는 요설로 돈을 뺏으러 왔다는 억측을 써서 우륵의 뼈가 부러지도록 흥선 두들겨 패고 만다. 이에 격분한 황보 박사는 웡고집을 응징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DNA를 뽑아내고는 은밀히 줄기세포를 통해 똑같은 웡고집을 만들어내는데...</p>	100명
2015. 9. 12(토) 문갑도 자구리축제		<p>*스텝* 조연출 : 손경희 무대 : 송용일 안무 : 박이표 작곡 : 이병복 무대소품디자인 : 서정인 분장 : 한국분장 사무단원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p>	<p>한 집에서 맞닥뜨린 두 웡고집.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서 진짜 웡고집을 찾는 일대 소동이 벌어진다. 하지만 제조된 웡고집이 진짜라는 판결을 받고 본래의 웡고집은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자 진짜 웡고집은 밤마다 울며 몰래 자기 집 주변을 엿보는데 자기와 똑같이 행동하는 가짜 웡고집의 행태가 가관이고 흥포하여 스스로를 반성하게 된다.</p> <p>결국 재판과정을 통해 자기가 진짜임을 증명한 웡고집은 만들어진 웡고집을 용서하고 황보 박사 역시 자기의 탐욕이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었음을 고백하며 용서와 상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제시하게 된다.</p>	50명
2015. 9. 15(화) 검단초등학교				400명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5. 9. 18(금)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200명
2015. 10. 14(수) 신현고등학교	찾아가는 공연 “미스터 웡을 찾아서”	<p>작가 : 김태수 연출 : 주요철</p> <p>*출연진* 이범우 최진영 김현준 이신애 심영민 김문정 김희원 이수정 김태범</p>	<p>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새 생명연구 센터의 황보 박사는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비 후원을 부탁하기 위해 욕심 많고 돈 많은 웡고집의 집에 제자 우륵을 보낸다. 그렇지만 웡고집은 어처구니없는 요설로 돈을 뺏으러 왔다는 억측을 써서 우륵의 뼈가 부러지도록 흠씬 두들겨 패고 만다. 이에 격분한 황보 박사는 웡고집을 응징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DNA를 뽑아내고는 은밀히 줄기세포를 통해 똑같은 웡고집을 만들어내는데...</p>	700명
2015. 10. 15(목) 한무리 Holylife		<p>*스텝* 조연출 : 손경희 무대 : 송용일 안무 : 박이표 작곡 : 이병복 무대소품디자인 : 서정인 분장 : 한국분장 사무단원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p>	<p>한 집에서 맞닥뜨린 두 웡고집.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서 진짜 웡고집을 찾는 일대 소동이 벌어진다. 하지만 제조된 웡고집이 진짜라는 판결을 받고 본래의 웡고집은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자 진짜 웡고집은 밤마다 울며 몰래 자기 집 주변을 엿보는데 자기와 똑같이 행동하는 가짜 웡고집의 행태가 가관이고 공포하여 스스로를 반성하게 된다.</p>	60명
2015. 10. 19(월) 복지콜 노인복지센터			<p>결국 재판과정을 통해 자기가 진짜임을 증명한 웡고집은 만들어진 웡고집을 용서하고 황보 박사 역시 자기의 탐욕이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었음을 고백하며 용서와 상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제시하게 된다.</p>	60명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5. 10. 21(수) 해군 제226 전진기지				50명
2015. 10. 23(금) 해든채 노인복지센터		<p>작가 : 김태수 연출 : 주요철</p> <p>*출연진* 이범우 최진영 김현준 이신애 심영민 김문정 김희원 이수정 김태범</p>	<p>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새 생명연구 센터의 황보 박사는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비 후원을 부탁하기 위해 욕심 많고 돈 많은 옹고집의 집에 제자 우륵을 보낸다. 그렇지만 옹고집은 어처구니없는 요설로 돈을 뺏으러 왔다는 억측을 써서 우륵의 뼈가 부러지도록 흠씬 두들겨 패고 만다. 이에 격분한 황보 박사는 옹고집을 응징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DNA를 뽑아내고는 은밀히 줄기세포를 통해 똑같은 옹고집을 만들어내는데...</p>	60명
2015. 10. 28(수) 계산여자고등학교	<p>찾아가는 공연 “미스터 옹을 찾아서”</p>	<p>*스텝* 조연출 : 손경희 무대 : 송용일 안무 : 박이표 작곡 : 이병복 무대소품디자인 : 서정인 분장 : 한국분장 사무단원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p>	<p>한 집에서 맞닥뜨린 두 옹고집.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서 진짜 옹고집을 찾는 일대 소동이 벌어진다. 하지만 제조된 옹고집이 진짜라는 판결을 받고 본래의 옹고집은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자 진짜 옹고집은 밤마다 울며 몰래 자기 집 주변을 엿보는데 자기와 똑같이 행동하는 가짜 옹고집의 행태가 가관이고 흉포하여 스스로를 반성하게 된다.</p> <p>결국 재판과정을 통해 자기가 진짜임을 증명한 옹고집은 만들어진 옹고집을 용서하고 황보 박사 역시 자기의 탐욕이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었음을 고백하며 용서와 상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제시하게 된다.</p>	1,000명
2015. 10. 29(목) 청학동 주민센터				200명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5. 11. 27 ~ 12. 5 소공연장 (13회)</p>	<p>기획공연 “하얀 동그라미 재판”</p>	<p>원작 : 베르톨트 브레히트 각색 : 배삼식 연출 : 주요철</p> <p>*출연진* 서국현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김문정 김태훈 송주희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학생 배우> 김미란(백석고) 배준상(인제고) 백수민(신현고) 안상호(인제고) 엄채영(석정여고) 윤세민(인제고) 이선영(해원고) 이소연(학익여고) 이종현(인제고) 장새영(신현고) 한길웅(가정고) 문혜림(신현고) 박태인(박문여고) 백종훈(인제고) 손자영(인명여고) 오정율(해원고) 이중석(학익고) 탁수경(백석고)</p> <p>*스텝* 음악 : 안현진 무대미술 : 송용일 의상 : 손진숙 조명 : 박석광 움직임 : 김원범 분장 : 이정희 소품 : 기태인 노래지도 : 이신애 사진 : 유재형 동영상 : MsEGTV 홍보디자인 : 김미연 협력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김세롬</p>	<p>베르톨트 브레히트의 1948년 작으로 나온 코카서스의 백목원을 원작으로 현명한 판관의 이야기를 담은 13세기 중국 원나라의 『석필 이야기』의 번역본 내용과 구약성서에 나오는 친어머니를 가리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p> <p>이야기는 관등재를 지나러 가는 초파일날 시작된다. 장자부인의 허녀 순례와 근위대 나졸인 칠복이는 전쟁을 앞두고 서둘러 약혼을 한다. 곧이어 반란이 일어나 장자는 처형되고 장자부인은 도주하게 된다. 도망가던 순례는 성 안으로 돌아와 장자의 자식 귀동이를 데리고 오빠가 살고 있는 북쪽 산악지대로 도주한다. 현상금이 걸려있는 장자의 자식을 맡아서 순례는 모든 희생과 무사들의 위협을 감수하며 자신의 아이처럼 키운다. 입양을 합법화하기 위해 순례는 유섭과 형식상의 결혼을 하고,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병자 행색을 하고 있었던 유섭은 전쟁이 끝나자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며 순례에게 온갖 수모를 준다.</p> <p>전쟁에서 돌아온 약혼자 칠복은 순례를 오해하여 약혼을 파기하려 한다. 그러던 중 옛 권력소유자들이 다시 복귀하고 장자부인은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찾고자 한다.</p> <p>전직 이방이자 숲쟁이인 봉선달은 장자부인과 순례 사이에서 양쪽의 주장을 듣고 난 후 하얀 동그라미 안에 귀동이를 세우고 두 여인에게 아이를 잡아당기라고 명령을 내린다. 장자 부인은 껌싸게 끌어당기지만, 순례는 안전을 위하여 아이를 놓아버림으로 권리를 포기한다. 봉선달은 순례가 진정한 모성애를 간직한 어머니라고 판결한다. 순례는 봉선달의 판결로 아이를 얻게 되고 칠복이와도 결혼할 수 있게 된다.</p>	<p>3,799명</p>

※ 정기공연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2건 / 16회			5,281명
2015. 1. 30 ~ 2. 7 소공연장 (8회)	제69회 정기공연 “메테아네이처”	<p>연출 : 주요철 극작 : 홍창수</p> <p>*출연진* 강주희 송주희 김세경 정순미 김태훈 김희원 이신애 김현준 심영민 강성숙 김문정 서창희 권순정 이규호</p> <p>*스텝* 드라마트루기 : 하형주 조연출 : 손경희 무대감독 : 최소현 무대디자인 : 임창주 조명디자인 : 이나구 의상디자인 : 정경희 소품디자인 : 서정인 작곡 : 강은구 안무 : 박이표 분장디자인 : 박팔영 사무단원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p>	<p>남편 이아손의 배신으로,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친 두 아들을 죽인 메테아! 그녀는 질투와 광기의 살아있는 전설이다!</p> <p>숲의 부족 지도자의 딸인 메테아는 남편 이아손이 자신을 버리고 글라우케와 결혼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글라우케는 도시 지배자의 딸로서 권력지향적인 그녀는 도시 확장을 위해서는 숲의 부족이 지닌 황금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아손에게 그 황금을 약탈해오면, 권력자인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결혼 후 이아손의 두 아이를 기르겠다고 약속한다.</p> <p>메테아는 부상을 당한 채 추격을 당하고 있는 오빠를 우연히 만나 숲의 부족의 멸망과 숲의 파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오빠는 도시 부족과 숲의 부족 간 전쟁의 근원이 황금을 약탈해간 이아손 때문이라며, 그가 홀리고 간 증표를 메테아에게 건네준다. 추격자들은 오빠를 죽이고, 메테아는 위대한 전사 이아손의 아내라고 대답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메테아는 자신이 살기 위해 오빠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이아손을 가장 증오했면서도 그의 아내라고 말한 자신의 비겁함에 울분을 터뜨린다.</p> <p>메테아는 배신자 이아손과 글라우케,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까지 죽여 이아손을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지내게 하겠다고 결심한다. 메테아는 이아손에게 두 아들을 넘기고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떠나지만, 다시 돌아와 그들을 엿본다. 메테아의 집에서 글라우케는 메테아가 준비한 독이 들어있는 과일주를 마시고 쓰러진다. 이아손도 독배를 마셔 죽으려 할 때, 메테아가 이아손에게 해독제를 먹여 그를 살려낸다. 이아손은 메테아가 글라우케를 죽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메테아는 오빠로부터 건네받은 증표를 보여주며 숲의 부족의 파멸과 숲의 파괴 내용을 전한다. 그리고 이아손이 보는 앞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독이 든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한다. 이아손은 두 아들의 죽음을 막아보려 했으나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메테아는 수술을 하여 죽은 숲의 부족의 영혼들과 생명들의 영혼을 부르는 의식을 치른다. 마지막으로 두 아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깨워 새 집을 향해 떠난다.</p>	1,052명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5. 5. 9 ~ 17 대공연장 (8회)</p>	<p>제70회 정기공연 “로미오와 줄리엣”</p>	<p>공동연출 : 벨라코비치발레리, 주요철 원작 : 셰익스피어 번역 : 신영선</p> <p>*출연진* 심영민 강주희 이규호 정순미 권순정 서국현 김태범 이범우 김세경 김현준 김희원 김현준 권순정 서창희 김문정 차광영 김태훈 최진영 송주희 강성숙 이신애</p> <p><객원> 장우현 정홍섭 김상우 윤호상 노형국 유승원 이정은 이재은 류일선</p> <p>*스텝* 의상 : 알레사 자예즈 무대 : 송용일 분장 : 강대영 소품 : 서정인 영상 : 김성철 음향 : 이복행 조명 : 이나구 헤어 : 빅토리아 사진 : 류재형 동영상 : EGTV 통역 : 장우현 홍보디자인 : 김미연 협력연출 : 막심노비코브, 손경희 무대감독 : 조영민 사무단원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p>	<p>러시아 연출가 벨라코비치 발레리 로만노비치 연출! 세월이 흘러도 모두의 가슴에 남은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아름다운 비극!</p> <p>베로나의 최대 가문 몬테규가와 캐플렛가는 불공대천의 원수사이다. 몬테규 영주의 잘생긴 아들 로미오는 평생 순결을 서약한 로잘린에게 당한 실연으로 몹시 우울한 상태인데 마지못해 친구들과 함께 가면무도회 복장을 하고 캐플렛가 잔치에 참석한다. 캐플렛 영주의 아름다운 딸 줄리엣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로미오는 잔치가 끝난 후 그녀의 모습을 볼수 있을까 하여 그녀의 창아래서 서성이다가 자신에 대한 줄리엣의 혼잣말 사랑고백을 엿듣게 된다. 그는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들은 다음 날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한다. 로미오가 감히 캐플렛가의 잔치에 참석한 것을 눈치챈 캐플렛의 외조카 티볼트가 로미오 친구들에게 시비를 걸어 결투 중 머큐쇼를 죽인다. 그 소식에 분개한 로미오가 티볼트를 죽이고 추방되니, 줄리엣은 친척 오빠의 죽음이 슬프지만 로미오에 대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둘이 로렌스 수사의 주례로 결혼한 사실을 모르는 캐플렛 영주가 줄리엣을 파리스 백작과 막무가내로 결혼시키려 하자 줄리엣은 로렌스 수사에게 다시 도움을 청한다. 수사는 한참 망설인 끝에 먹으면 42시간동안 죽은 듯 호흡이 정지했다가 감쪽같이 다시 살아나는 약을 권한다. 줄리엣이 죽은 걸로 하고 묘지에 안치되어 있으면, 연락을 받은 로미오가 와서 깨어난 줄리엣을 데려가기로 한다. 그러나 수사의 편지는 로미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줄리엣의 장례식 소식을 접한 로미오는 독약을 사 들고 자살한 결심으로 줄리엣 무덤으로 잠입한다. 진심으로 문상 중이던 파리스를 결투로 죽인 후 자신도 독약을 마시고 죽는다. 줄리엣은 깨어나지만 로미오가 자살한 것을 보고 남은 독약으로 자살하려고 하지만 남은 독약이 없자, 로미오의 단도를 뽑아 자신을 찌른다. 로렌스 수사가 도착하지만 때는 늦었고 그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은 두 가문은 비로소 화해한다.</p>	<p>4,229명</p>

* 기획공연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2건 / 18회			5,837명
2015. 4. 3 ~ 5 소공연장 (5회)	교사와 함께 공연하는 “한 여름 밤의 꿈”	<p>작 : 셰익스피어 각색 : 오은희 연출 : 주요철</p> <p>*출연진* 서국현 차광영 심영민 김세준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범 김태훈 송주희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교사 배우> 신용우(은지초 교장) 이명분 (경인교대부설초 교장) 박근희(인혜학교) 권유미(석정여고) 이지선(청라초) 김수정(학익고) 임윤정(문일여고) 이윤구(한누리학교) 박성준(서면초) 이주희(마장초) 김배정 (인천생활과학고) 이영은(가정고) 김현경(은지초) 김보라(신현고)</p> <p><대학생 배우> 류일선 박경선 채영은 한선구</p> <p><객원> 장승연 유채아</p> <p>*스텝* 작곡 : 이병복 무대디자인 : 송용일 조명디자인 : 이나구 의상디자인 : 정경희 안무 : 박이표 음향감독 : 이복행 소품디자인 : 서정인 분장디자인 : 이정희 헤어협찬 : 달팡 홍보디자인 : 김미연 무대감독 : 조영민 녹음·믹싱 : 이주연 조안무 : 유지숙 협력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p>	<p>공장에 수상한 신참이 나타났다?? 수상한 신참과 공장의 미생들이 만드는 극중 극 한 여름 밤의 꿈!</p> <p>인간 대신 점점 기계가 대체해 가는 미래 사회의 어느 자동차 공장. 아직까진 생산 라인이 인간의 힘으로 굴러간다. 허나 그것도 잠시의 희망일 뿐, 글로벌화와 현대화를 기치로 내세워 공장은 어느새 멈추고 근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 회사 측의 입장을 기다린다. 현대 신참이라고 나타난 인물이 기다리는 동안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을 만들어 보자고 제시한다. 책이란 것조차 읽어 본 적 없는 이들에게 연극은 낯설면서도 불편한 존재다. 하지만 무료하고 초조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차츰 연극에 참여하게 되고 어느새 그들은 연극 속 “한 여름 밤의 꿈”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연극이 한참 무르익어 끝을 향해 갈 즈음,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오고, 공장은 폐쇄된 채, 기계화를 선언하고 근로자들은 일 자리를 잃고 공장을 떠나야만 할 입장이다. 더구나 연극을 제한했던 신참은 체포되어 가고. 이제 텅 빈 공장에 남은 근로자들은 그들 스스로 “한 여름 밤의 꿈”의 마지막을 장면을 만들어간다. 결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들만의 꿈을 위해...</p>	2,038명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5. 11. 27 ~ 12. 5 소공연장 (13회)</p>	<p>기획공연 “하얀 동그라미 재판”</p>	<p>원작 : 베르톨트 브레히트 각색 : 배삼식 연출 : 주요철</p> <p>*출연진* 서국현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김문정 김태훈 송주희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학생 배우> 김미란(백석고) 배준상(인제고) 백수민(신현고) 안상호(인제고) 엄채영(석정여고) 윤세민(인제고) 이선영(해원고) 이소연(학익여고) 이종현(인제고) 장새영(신현고) 한길웅(가정고) 문혜림(신현고) 박태인(박문여고) 백종훈(인제고) 손자영(인명여고) 오정율(해원고) 이중석(학익고) 탁수경(백석고)</p> <p>*스텝* 음악 : 안현진 무대미술 : 송용일 의상 : 손진숙 조명 : 박석광 움직임 : 김원범 분장 : 이정희 소품 : 기태인 노래지도 : 이신애 사진 : 유재형 동영상 : MsEGTV 홍보디자인 : 김미연 협력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김세롬</p>	<p>베르톨트 브레히트의 1948년 작으로 나온 코카서스의 백목원을 원작으로 현명한 판관의 이야기를 담은 13세기 중국 원나라의 『석필 이야기』의 번역본 내용과 구약성서에 나오는 친어머니를 가리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p> <p>이야기는 관등재를 지나러 가는 초파일날 시작된다. 장자부인의 허녀 순례와 근위대 나졸인 칠복이는 전쟁을 앞두고 서둘러 약혼을 한다. 곧이어 반란이 일어나 장자는 처형되고 장자부인은 도주하게 된다. 도망가던 순례는 성 안으로 돌아와 장자의 자식 귀동이를 데리고 오빠가 살고 있는 북쪽 산악지대로 도주한다. 현상금이 걸려있는 장자의 자식을 맡아서 순례는 모든 희생과 무사들의 위협을 감수하며 자신의 아이처럼 키운다. 입양을 합법화하기 위해 순례는 유섭과 형식상의 결혼을 하고,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병자 행색을 하고 있었던 유섭은 전쟁이 끝나자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며 순례에게 온갖 수모를 준다.</p> <p>전쟁에서 돌아온 약혼자 칠복은 순례를 오해하여 약혼을 파기하려 한다. 그러던 중 옛 권력소유자들이 다시 복귀하고 장자부인은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찾고자 한다.</p> <p>전직 이방이자 숲쟁이인 봉선달은 장자부인과 순례 사이에서 양쪽의 주장을 듣고 난 후 하얀 동그라미 안에 귀동이를 세우고 두 여인에게 아이를 잡아당기라고 명령을 내린다. 장자 부인은 껌싸게 끌어당기지만, 순례는 안전을 위하여 아이를 놓아버림으로 권리를 포기한다. 봉선달은 순례가 진정한 모성애를 간직한 어머니라고 판결한다. 순례는 봉선달의 판결로 아이를 얻게 되고 칠복이와도 결혼할 수 있게 된다.</p>	<p>3,799명</p>

※ 찾아가는 시립극단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12건 / 12회			3,380명
2015. 9. 10(목) 한국전력공사 영종지사	찾아가는 공연 “미스터 웅을 찾아서”	작가 : 김태수 연출 : 주요철 *출연진* 이범우 최진영 김현준 이신애 심영민 김문정 김희원 이수정 김태범 *스텝* 조연출 : 손경희 무대 : 송용일 안무 : 박이표 작곡 : 이병복 무대소품디자인 : 서정인 분장 : 한국분장 사무단원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새 생명연구센터의 황보 박사는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비 후원을 부탁하기 위해 욕심 많고 돈 많은 웅고집의 집에 제자 우륵을 보낸다. 그렇지만 웅고집은 어처구니없는 요설로 돈을 뺏으러 왔다는 억측을 써서 우륵의 뼈가 부러지도록 흠씬 두들겨 패고 만다. 이에 격분한 황보 박사는 웅고집을 응징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DNA를 뽑아내고는 은밀히 줄기세포를 통해 똑같은 웅고집을 만들어내는데... 한 집에서 맞닥뜨린 두 웅고집.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서 진짜 웅고집을 찾는 일대 소동이 벌어진다. 하지만 제조된 웅고집이 진짜라는 판결을 받고 본래의 웅고집은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자 진짜 웅고집은 밤마다 울며 몰래 자기 집 주변을 엿보는데 자기와 똑같이 행동하는 가짜 웅고집의 행태가 가관이고 흉포하여 스스로를 반성하게 된다. 결국 재판과정을 통해 자기가 진짜임을 증명한 웅고집은 만들어진 웅고집을 용서하고 황보 박사 역시 자기의 탐욕이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었음을 고백하며 용서와 상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제시하게 된다.	500명
2015. 9. 11(금) 남구노인문화센터				100명
2015. 9. 12(토) 문갑도 자구리축제				50명
2015. 9. 15(화) 검단초등학교				400명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5. 9. 18(금)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200명	
2015. 10. 14(수) 신현고등학교	찾아가는 공연 “미스터 웡을 찾아서”	<p>작가 : 김태수 연출 : 주요철</p> <p>*출연진* 이범우 최진영 김현준 이신애 심영민 김문정 김희원 이수정 김태범</p> <p>*스텝* 조연출 : 손경희 무대 : 송용일 안무 : 박이표 작곡 : 이병복 무대스펙디자인 : 서정인 분장 : 한국분장 사무단원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p>	<p>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새 생명연구 센터의 황보 박사는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비 후원을 부탁하기 위해 욕심 많고 돈 많은 웡고집의 집에 제자 우륵을 보낸다. 그렇지만 웡고집은 어처구니없는 요설로 돈을 뺏으러 왔다는 억측을 써서 우륵의 뼈가 부러지도록 흠뻑 두들겨 패고 만다. 이에 격분한 황보 박사는 웡고집을 응징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DNA를 뽑아내고는 은밀히 줄기세포를 통해 똑같은 웡고집을 만들어내는데...</p> <p>한 집에서 맞닥뜨린 두 웡고집.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서 진짜 웡고집을 찾는 일대 소동이 벌어진다. 하지만 제조된 웡고집이 진짜라는 판결을 받고 본래의 웡고집은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자 진짜 웡고집은 밤마다 울며 몰래 자기 집 주변을 엿보는데 자기와 똑같이 행동하는 가짜 웡고집의 행태가 가관이고 공포하여 스스로를 반성하게 된다.</p> <p>결국 재판과정을 통해 자기가 진짜임을 증명한 웡고집은 만들어진 웡고집을 용서하고 황보 박사 역시 자기의 탐욕이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었음을 고백하며 용서와 상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제시하게 된다.</p>	700명	
2015. 10. 15(목) 한무리 Holylife					60명
2015. 10. 19(월) 복지콜 노인복지센터					60명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5. 10. 21(수) 해군 제226 전진기지				50명
2015. 10. 23(금) 해든채 노인복지센터		작가 : 김태수 연출 : 주요철 *출연진* 이범우 최진영 김현준 이신애 심영민 김문정 김희원 이수정 김태범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새 생명연구 센터의 황보 박사는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비 후원을 부탁하기 위해 욕심 많고 돈 많은 옹고집의 집에 제자 우륵을 보낸다. 그렇지만 옹고집은 어처구니없는 요설로 돈을 뺏으러 왔다는 억측을 써서 우륵의 뼈가 부러지도록 흠씬 두들겨 패고 만다. 이에 격분한 황보 박사는 옹고집을 응징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DNA를 뽑아내고는 은밀히 줄기세포를 통해 똑같은 옹고집을 만들어내는데...	60명
2015. 10. 28(수) 계산여자고등학교	찾아가는 공연 "미스터 옹을 찾아서"	*스텝* 조연출 : 손경희 무대 : 송용일 안무 : 박이표 작곡 : 이병복 무대소품디자인 : 서정인 분장 : 한국분장 사무단원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	한 집에서 맞닥뜨린 두 옹고집.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서 진짜 옹고집을 찾는 일대 소동이 벌어진다. 하지만 제조된 옹고집이 진짜라는 판결을 받고 본래의 옹고집은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자 진짜 옹고집은 밤마다 울며 몰래 자기 집 주변을 엿보는데 자기와 똑같이 행동하는 가짜 옹고집의 행태가 가관이고 흥포하여 스스로를 반성하게 된다. 결국 재판과정을 통해 자기가 진짜임을 증명한 옹고집은 만들어진 옹고집을 용서하고 황보 박사 역시 자기의 탐욕이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었음을 고백하며 용서와 상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제시하게 된다.	1,000명
2015. 10. 29(목) 청학동 주민센터				200명

* 기타공연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3건 / 3회			3,800명
2015. 8. 5 ~ 6 포항 환호해맞이공원 (2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초청공연 “한 여름 밤의 꿈”	연출 : 주요철 원작 : 셰익스피어 *출연진* 김세경 강주희 서국현 정순미 차광영 강성숙 심영민 이수정 최진영 김태범 서창희 김태범 송주희 김희원 김현준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객원> 이정은 이광훈 채영은 유일신 이재은 장승연 *스텝* 무대 : 송용일 조명디자인 : 김신영 음향 : 김신혜 분장 : 이정희 조연출 : 손경희 무대감독 : 조영민 사무단원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김세룡	공장에 수상한 신참이 나타났다?? 수상한 신참과 공장의 미생들이 만드는 극중 극한 여름 밤의 꿈! 인간 대신 점점 기계가 대처해 가는 미래 사회의 어느 자동차 공장. 아직까진 생산 라인이 인간의 힘으로 굴러간다. 허나 그것도 잠시의 희망일 뿐, 글로벌화와 현대화를 기치로 내세워 공장은 어느새 멈추고 근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 회사 측의 입장을 기다린다. 헌데 신참이라고 나타난 인물이 기다리는 동안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을 만들어 보자고 제시한다. 책이란 것조차 읽어 본 적 없는 이들에게 연극은 낯설면서도 불편한 존재다. 하지만 무료하고 초조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차츰 연극에 참여하게 되고 어느새 그들은 연극 속 “한 여름 밤의 꿈”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연극이 한참 무르익어 끝을 향해 갈 즈음,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오고, 공장은 폐쇄된 채, 기계화를 선언하고 근로자들은 일 자리를 잃고 공장을 떠나야만 할 입장이다. 더구나 연극을 제한했던 신참은 체포되어 가고, 이제 텅 빈 공장에 남은 근로자들은 그들 스스로 “한 여름 밤의 꿈”의 마지막 장면을 만들어간다. 결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들만의 꿈을 위해...	1,200명
2015. 8. 8 ~ 9 거창 수송대 축제극장 (2회)	거창국제연극제 초청공연 “한 여름 밤의 꿈”			1,700명
2015. 9. 3(수)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참가공연 “한 여름 밤의 꿈”			900명

